

야생동물 카페 금지... “먹이 주기·만지기 체험 안 돼”

야생생물법 등 개정안 시행
광주·전남 5곳 유예 신고 완료
갈 곳 잃은 동물 방치·유기 우려
동물단체 “지자체 관리·감독을”

야생동물 카페나 판매시설 등에서 야생 동물 전시·먹이 주기 등이 금지됐다.

지난 14일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관련 업주들은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정부에 유예 기간 적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19일 찾은 광주 북구의 한 야생동물 카페. 출입구에는 ‘그동안 라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최근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곳에 있던 라쿤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14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 법은 이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

다만 2022년 12월 이전부터 운영되던



19일 광주 북구 한 야생동물 카페 출입문에 ‘그동안 라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야생동물 카페에 한해서 지난 13일 전에 유예 신고를 마친 시설은 4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유예 기간에도 야생동물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어길 시 행정당국을 통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올해 문을 연 야생동물 카페 등이다. 이날 찾은 카페도 지난 7월 문을 열어 유예 적용을 받지 못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업주들은 생계 문제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동물원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해야만 사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도변경·수익사 수입 등 지출 비용이 많아 대부분 동물원 허가보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담양에서 야생동물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동물과 교감을 할 수 있는 먹이 주기나 만지기 체험 등이 인기였다”며 “이런

활동이 아예 차단되니까 손님들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미 오랜 시간을 다른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사람의 손도 많이 타서 야생동물이 아니라 애완동물로 봐도 될 것 같다”며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해버리면 전국에 있는 야생동물 카페에서 동물들을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생동물 카페에서 전시하던 동물을 내년 개소 예정인 야생동물보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놴다. 신규 보호시설이 개소되기 전까지는 임시 협약을 맺은 야생동물 구조센터 10개소에서 보호를 맡는다.

하지만 동물 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복지변화팀장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 전시동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시행 과정에서 동물 복지 개선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동물 복지에 대한 관리나 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정상이 인턴기자

‘민주화 시위’ 현수막 걸었던 시민 재심서 무죄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포고령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오영상·박성운)는 19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민주화시위’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심에선 징역 1년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는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는 5·18민주화운동 행위 또는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죄를 저지하기 위해 벌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최기영 복구의원, 복구 검토부 ‘숨방망이 징계’ 지적

광주 북구의회는 최기영 복구의원이 19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복구청 검토부의 ‘숨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복구청에 검토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과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음에도 서로 짜맞추기한 듯 숨방망이식 경징계로 마무리한 결과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건 발생 1년여간 사실 인지를 못하고 추가비위 사실 등을 확인했다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하겠다던 사과문과 쇠신 약속은 어디로 갔냐”고 지적했다.

북구는 전날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검토부 선수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과 코치에게 각각

2개월, 1개월 감봉 처리했다.

최 의원은 “1~2개월 감봉이 엄한 벌이고 ‘일벌백계’냐”면서 “주민들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복구청의 제 식구 감싸기로 사실상 면죄부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8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복구청 소속 운동선수 A씨(32)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복구의회는 검토부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9월 행조특위를 구성해 총 7차례 회의와 1차례 현지확인 등을 진행했다.

정성현 기자

크리스마스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많은 눈 예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19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20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에 눈이 날리기 시작해 21~22일 2~7cm 눈이 내릴 전망이다.

21일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

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1일 오전 기온이 전날보다 5~1도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며 추워지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9~-4도, 낮최

고 기온은 -4~1도로 평년보다 4~10도 이상 낮다.

이번 강추위는 23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밤부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정상이 인턴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